

예·복습 습관되면 공부 즐거워진다



중학생 되기전에 꼭 잡아야 할 내 아이 공부습관

학생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이들 공부'다. '왜 공부하기 싫을까?', '왜 실전에 옮기지 못하지?', '노력은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등 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박 소장은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공부습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이라고 확신한다. 박 소장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즐거운 놀이로 만드는 데 필요한 7가지 요소들을 알아본다.

공부습관 체크 포인트

-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쉬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습관을 잡게 도와야 한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의 공부습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항목 가운데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 주말이나 휴일의 생활 리듬이 자녀들과 다르다
□ 자녀가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있다
□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
□ 자녀들의 현재 모습은 마음에 들지만 철이 들어 정신을 차리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 자녀가 혼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 자녀의 공부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잘 모른다
□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말 여가 활동을 결정할 때 자녀와 상의하지 않는다
□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원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공부의 추억

혹시 "공부가 즐거워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공부에 대한 안정은 경험에 있다.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면 부모는 우선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가만히 버려야 한다.

# 2. 규칙적인 두뇌 자극

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드라블보다 체력이다. 공부에서도 두뇌의 힘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이 교과서 아닌 소설 또는 동화책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혼내선 안 된다. 공부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두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단기간의 결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 고학년이 될수록 단순 이해·기억력보다 복잡한 사고력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선행 학습으로 겉모습만 키울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통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수 개념과 기초 지식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역지공부는 오히려 역효과 부모·자녀 함께 목표 설정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 3. 기억의 관리

월말 고사에서는 잘 나오던 성적이 범위가 넓어지면 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문제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해도 기억하지 못하면 말짱 '헛짓'이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느냐가 관건이다. 반복학습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꺼번에 열 번 반복하는 것보다, 수업 종료 후·전체 수업 종료 후·취침 전·기상 후·주말 등으로 다섯 번에 걸쳐 자주 반복하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

# 4. 생각하는 능력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논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잘 외우는 아이가 곧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닌 것은 바로



컴퓨터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이.

이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현재 성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실험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예습. 국어의 경우 공부할 문학작품을 미리 찾아 읽어보고, 영어 과목에서는 교사의 설명 없이 스스로 지문을 독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5. 생활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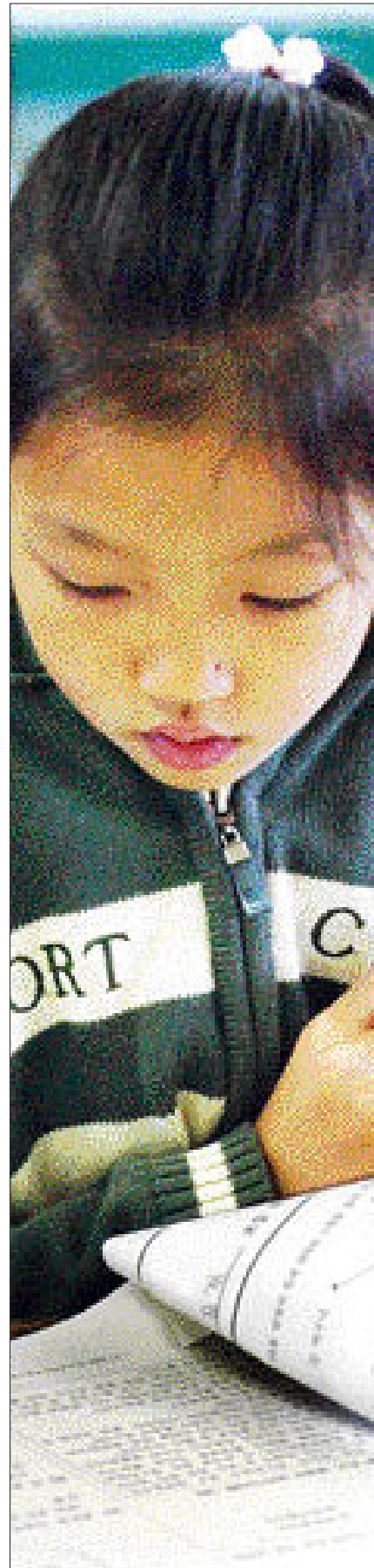
공부습관도 생활 중 하나라면 평소 습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정신차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며 다짐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드물다. 생활 습관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수동적인 시간표 안에 가두선 안 된다. 방과 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아이들에게 만약 자유시간이 허용된다면 무기력감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 스스로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무조건 많은 시간 공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마감 시간을 지키는 법, 공부와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습관 등을 기르는 것이 좋다.

# 6. 미디어 중독

청소년들의 컴퓨터·휴대전화 중독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심각성이 커지는 예이다. 우선 부모들은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철이 들면 알아서 자제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중독의 방지를 위해 부모는 아이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명확하고도 일관성 있게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

# 7. 개성 있는 공부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해왔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라선 안 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부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를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개성을 살리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부의 양도에 얽매어선 안 된다. 부모의 고정관념이나 남들의 성공스토리를 무작정 대입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대, 지속 시간, 공부방의 환경, 공부형태 등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도록 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원도원극장 11월 2일 영화

기을로 1995년 6월 29일 상영이 끝났다

엔터시네마 11월 2일 영화

마음이 11월 2일 영화

컬럼버스시네마 11월 2일 영화

내가 있어 참 좋다... 11월 2일 영화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대지 매도가 협의결정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현대공인중개사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